

고린도전서 1장 10절 - 17절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보자...

- 교회의 역사 = 분열의 역사 = 정말 열심히 해야 지킨다

어떤 문제의 요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잘못된 가르침
- 직분의 신성화
- 소명 없는 직분자들 (목회자/장로...)
- 세상 문화에 물든 교회 문화
- 본질의 문제 VS 단순한 전통의 문제
- 복음이 아닌 가르침으로 만족하는 얇은 은혜
- 헌신이 없는 만족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교회와 성도의 연합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서로 사랑 + 말씀 좌.우

함께 나눠 봅시다

1.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분열하지 말것을 이야기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권하는가?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말 뜻이 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
3.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 리더 편 가르기 - 우월함

 - 4개파 - 바울. 아볼로. 게바(베드로). 그리스도
4.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 예수가 나뉘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나뉠 수 있는가?
5.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 예수의 이름 (성부/성자/성령)
6.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 나의 소속 -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7. 세례를 베푸는 VS 복음을 전함
 - 세례와 복음의 관계

 - 사역의 방향성
8. 종교를 통해 나를 채움 VS 예수를 채움
 -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헬라 문화

 - 나를 비우고 나를 죽임 = 예수로 채워짐 = 예수가 된다